

## 1000만달러 사나이들 속속 입국

### 슈마허·바리첼로 등... 해외관광객도 몰려 열기 고조



영암 F1 D-1

지구촌 6억 TV 중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22~24일)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를 통틀어 24명뿐인 '1000만 달러의 사나이' F1 드라이버들이 속속 무안공항을 거쳐 영암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으로 집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3·18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F1 Speed Up Festival)들이 펼쳐지면서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또 2000명이 넘는 국제자동차연맹(FIA) 및 F1대회 관계자들과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를 즐기려는 해외 관광객들로 시내 중심가는 '글로벌 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다.

F1 대회조직위원회는 20일 "윌리엄스 레이싱팀의 드라이버 루벤스 바리첼로, 메르세데스 페트로나스 레이싱팀의 미하엘 슈마허가 오늘 밤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등 무안·인천공

항을 통해 10명의 드라이버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벤트 일정 등으로 먼저 입국한 경우와 구체적 일정이 파악되지 않은 드라이버까지 합하면 24명 중 절반이 넘는 주전급 스타들이 대거 한국을 찾은 셈이다.

개최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와 목포시내 일대에서 펼쳐진 F1 대회 첫 공식 이벤트인 슈퍼카 퍼레이드에는 곳곳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개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슈퍼카 퍼레이드에서는 벤

츠·페라리·람보르기니·포르쉐·스피라 등 세계적인 슈퍼카와 정통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클래식카 등 200여대의 자동차 행렬이 목포 시내를 누볐다. 카퍼레이드의 도착지점인 목포하당 평화광장에서는 고적대의 환영행사와 해군 의장대 공연이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첫 한국 대회를 취재하기 위한 전 세계 보도진들의 미디어센터 등로도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영암경주장의 시설물 설치도 최종 점검에 들어가는 등 손님 맞이 준비가 마무리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틀 후엔 영암서킷에서 F1 머신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최다 출전 선수인 브라질의 루벤스 바리첼로가 20일 오후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와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도 이날 밤 10시에 전용기를 타고 무안에 도착했다. /최현배기자 choi@

## 제1회 광주·전남 초·중학생 영어평가대회



초·중학생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광주일보와 한국토익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영어교육회가 후원하는 제1회 광주·전남 초·중학생 영어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ETS와 연계, 28년간 한국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YBM-sisa 가 시험 전과정을 총괄, 최고의 공신력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20여명에게 1개월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시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적분석표와 전국 순위, 상관관계표를 통한 TOEIC 예상점수 예측 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개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고 TOEIC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자 : 11월 15일 ~ 12월 6일
-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ilbo.co.kr)
- 대 상 : 광주·전남 초·중학생(초1학년~6학년, 중1학년~3학년)
- 경시대회 일자 : 12월 19일(일) 오전 10시
- 경시대회 장소 : 광주·전남 27개 고사장 (추후통보)
- 평가 과목 및 참가비  
초등부 - JET (22,000원)  
중등부 - TOEIC bridge (29,000원)
- 특 전 : 시·군·구별 성적우수자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장학금
- 문 의 : 광주일보사 062-220-0555

光州日報社

## 끝내 머리뎛고 낙지시식

### 어민들 서울시 비난 최고조...성동구는 통째로 먹어



낙지파동이 정지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 성동구가 20일 동시에 낙지 시식을 하며 낙지 소비 촉진 행사를 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시는 여전히 먹물과 내장의 유해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성동구는 먹물과 내장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서울시는 이날을 '낙지 데이(day)'로 정하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낙지 요리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메뉴는 낙지 생야채 비빔밥을 비롯해 홍합탕·만두튀김·과일야채샐러드·포기김치·짬뽕으로 짜였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직원 1700여명의 점심 한끼 재료로 모두 2700마리의 낙지를 구입한 뒤 먹물과 내장을 제거하고서 제공했다.

이날 시청 직원식당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직원 1650여명이 시식했다.

서울시는 이번 '낙지 데이'를 통해 "낙지는 먹물과 내장만 빼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동구에서도 낙지 시식회를 개최했지만 서울시와는 정반대 성격이었다. 낙지 먹물과 내장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알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마련된 행사였던 것이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무안에서 세발낙지 400마리를 공수해왔으며, 구내 식당 앞에 마련한 시식행사장에서 고재득 구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산낙지를 통째로 시식했다.

성동구청 진성권 총무과장은 "낙지가 인체에 무해함을 알리고 소비량이 줄어든 낙지 소비 홍보를 위해 낙

지를 통째로 먹는 시식회를 기획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어민과 판매상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카드뮴 낙지' 파동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이날을 '낙지 데이(day)'로 정해 점심으로 머리를 떼어낸 낙지 요리를 제공키로 한데 대해 "오 시장은 (낙지 파동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와 성동구가 20일 동시에 낙지 시식행사를 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시청 구내식당에서 벌인 '낙지 데이'에는 먹물과 내장을 제거한 '낙지 생야채 비빔밥'이 등장했다(사진 위). 반면 성동구가 구청 구내식당에서 연 낙지 시식회에서는 낙지 먹물과 내장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발낙지를 통째로 먹었다. /연합뉴스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한이벤트  
\*객 실 :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철순전 - 각종 세미나 대·중·소·초·연회장 준비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광주 유통 낙지 안전...카드뮴 기준치 이하

광주지역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낙지는 중금속 잔류기준치에 크게 못 미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광주시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수(자유선진당·충남 아산) 의원과 이윤석(민주당·무안 신안) 의원의 질문에 "최근 낙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시 보건환경연구원 이 양동시장과 남광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낙지를 수거해 중금속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무안과 해남 등지에서 나온 낙지 24마리와 중국산 낙지 6마리를 대상으로 한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에서 카드뮴과 납 등이 모두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산의 경우 전남산에 비해 검출량이 많았으나 기준치 보다는 낮았다.

전남산의 경우 카드뮴이 기준치(2mg/kg)보다 최대 50배 낮은 0.04~0.22mg/kg, 납은 기준치(2mg/kg)보다 최대 250배 낮은 0.008~0.025mg/kg이 검출됐다. 중국산은 카드뮴이 0.59~0.73mg/kg, 납은 0.024~0.044mg/kg이 나왔다.

강 시장은 "머리만 따로 검사했는데도 기준치보다 낮았으며 한마디로 낙지는 청정어류이고, 없어서 못 먹는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pradohotel.co.kr

## '확' 바뀐 프라도호텔 웨딩홀에서 당신의 미래를 시작하십시오!

특급 프라도호텔 웨딩을 선택 하셔야 할 이유

1. 실속있는 고품격 웨딩 (일반 예식장 가격으로 모십니다.)  
예식 진행 비용도 모두 무료 / 식사요금만 부담
2. 하루 단 한쌍 (450명 이상예약시)
3.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예식시간 (최소 200명 이상예약 가능)
4. 독립적인 식사장소 제공을 통한 여유로운 피로연
5. 특급호텔 조리사가 제공하는 최상의 요리
6. 한 쌍 만의 사용 고객을 위한 혼잡하지 않는 주차장

사 | 원 | 모 | 집  
프라도호텔과 함께 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커피숍	여 0명
종식당	여 0명
연회장	남 0명
프린트클러	남 0명 경험자
프린트벨맨	남 0명

■ 자격요건 : 응모단정하며 성실히 일하실 분.

호텔 프라도 PRADO  
예약문의/상담. 062-654-6600